

**열왕기상 17. 선지자 ‘엘리아’의 등장과 그의 첫 사역 (왕상 17:1-24)**

**들어가기**

본 장은 지난 시간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선지자 ‘엘리아’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를 통해 ‘엘리아’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1.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의 등장과 그의 첫 번째 사역. (1-7 절)**

1) 선지자 ‘엘리아’는 ‘아합’ 왕에게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1 절)

➤ 우선 선지자 ‘엘리아’는 누구였나?

①. 성경은 그가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이었다고 소개함.

- ‘길르앗’은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 일대를 가리킴.
  - 그런데 ‘길르앗’이란 이름의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짐.
  - 곧 신앙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아합’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선지자 ‘엘리아’가 나왔다는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는 볼 수 있음.
- ‘디셉’은 ‘엘리아’의 고향으로 성경에 여섯 번이나 언급됨 -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모름.
  - 참고 외경 토빗서 1 장 2 절 = ‘납달리’에 속한 ‘게데스’지역 남쪽을 ‘디셉’으로 언급함.
- 곧 당시 ‘엘리아’는 ‘디셉’에서 태어나 ‘길르앗’으로 이주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측됨.

②. ‘엘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

- 실제로 ‘엘리아’의 생애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받쳐졌음!
- 유대인들은 ‘모세’와 함께 ‘엘리아’를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지자로 추앙함!
- 참고로 성경은 ‘엘리아’의 사역을 제외한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음!

➤ 그럼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아’의 첫 외침은 무엇이었나요?

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

- 이 말은 우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임을 선언한 것!
- 그런데 이 말은 선지자로서 당연한 말이고,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신앙고백임을 깨달아야 함!!
- 당시는 왕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열심으로 숭배한 시대!
- 그런 시대에 ‘아합’ 왕을 찾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 곧 ‘엘리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 ②.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함!
  - 성경은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축복!
  -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은혜의 비를 멈추시고 그 땅이 마를 것이라 예언하심. (신 11:17, 28:24).
  - 그런데 당시 ‘엘리야’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 -> 이는 곧 오래 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
  - 참고로 학자들은 ‘엘리야’의 선언은 ‘바알’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고 지적!
    - 왜냐하면 ‘바알’은 땅에 비를 내려 생산력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

2) 이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 절)

- 특히 3 절 주목 ->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 ‘여기서’는 ‘아합’ 왕이 있던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말!
    - > 참고로 ‘엘리야’는 3 번에 걸쳐 ‘아합’ 왕이 살던 궁으로 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
  - ‘숨고’ 라는 말은 ‘사타르’ 라는 말로 '피하다', '감추다' 라는 동사.
    - 곧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 ‘아합’과 ‘이세벨’의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음을 짐작!
  -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앞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의 정면 대결을 위해 잠시 ‘엘리야’를 피신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 (Lange, Matthew Henry, R.D. Patterson)
- 4 절 주목 -> 이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 ‘엘리야’ 를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심!
  - 레 11 장 5 절 = '까마귀'는 부정한 새! ->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다?
    -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온통 바알을 숭배하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며 저들의 상태를 역설적으로 책망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것은 이후 이방인 과부인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3)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5-7 절)

- 5 절 주목하면, ‘엘리야’는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숨어 지냈음!
  - 그런데 어찌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엘리야’ 모습을 보며 비웃었을 듯!
  -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것!
-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와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셨음!
  - 이것은 분명 까마귀들의 본능을 생각해 볼 때, 기적적인 일!
    - 따라서 ‘엘리야’는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
-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얼마 후부터 시냇물도 말라버리게 되었음!
  - 왕상 18 장 1 절과 야고보서 5 장 17 절을 보면, 당시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16 절)

1)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성문 주위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8-10 절)

- ‘시돈’에 속한 ‘사르밧’
  - ‘시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던 나라!
  - ‘사르밧’은 ‘염색하다’는 뜻에서 온 말로 당시 염료 생산으로 유명했던 지역.
  -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시작되자,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땅 한 성으로 깊숙이 숨기셨다는 것!
- 나아가 나뭇가지를 줍던 한 가난한 이방인 과부를 통해 보호받게 하셨음!
  - 참고로 당시 이 과부가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함!
- 아무튼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후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음!
  -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인이고 보잘것없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함!
- 특별히 과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게’ 하신다는 말의 원어는 ‘카르케레카’ 라는 말로, 그 뜻은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정성을 다해 보살핌’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

2) 이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0-11 절)

- 이것은 이 여인을 향한 두 가지 시험 곧 Test 였다고 해석!
- ①. 물 한 그릇!
  - 당시 가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틴 주변의 여러 지역에도 나타남!
  - 따라서 물이 귀한 상황에서 낯선 나그네의 갑작스런 물 요구는 분명 탐탁지 않은 요구!
  - 따라서 이런 부탁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르밧 과부가 넘어야 할 첫 Test!
  - 참고로 이 장면은 오래 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장면을 연상케 함!
- ②. 떡 한 조각!
  - 첫 번째 부탁을 거절치 않자 ‘엘리야’는 좀더 어려운 부탁 곧 두 번째 Test 를 시도!
  -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요청을 쉽게 응할지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

3) 그럼 당시 ‘사르밧’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12 절을 주목!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①. 우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 이 말을 근거로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해석.
- 그러나 그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녀가 하나님을 섬겼다가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통적으로 교류가 많았기에, 그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신을 거론한 정도로 보아야 할 것!

②. ‘나는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아들과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죽을 것!’

- 아마도 ‘엘리야’의 요청에 크게 당황하고, 또 서러움이 갑작스럽게 폭발한 듯!
- 이는 당시 ‘엘리야’의 요구는 그녀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구였음!

4) ‘엘리야’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믿음으로 자신의 말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3-14 절)

- ‘엘리야’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를 다독였음!
  - 여기 사용된 원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 '존경하다'는 뜻이 포함됨!
  - 곧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말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
  - 또한 자신이 처한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복음을 전했음!
- 그 후 자기 말대로 그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주고, 그 후에 아들과 먹으라고 도전함!
  - 이것은 곧 절망적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것이 최후란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치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한 것!
  - 하나님은 종종 최후의 양식! 이것으로 마지막! 이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 ->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특징!!
  - 우리의 삶에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의 삶을 잊지 말자!

5) 그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녀의 집에는 여러 날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16 절)

- 15 절을 주목해 보면, 당시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녀의 ‘식구’들이 여러 날을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함!
  - 여기서 사용된 '식구'란 원, ‘바이트’란 말로 ‘그녀의 친척들’을 포함한 말!
    - > 곧 그녀의 친척들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함께 먹었다는 것을 의미!
    - >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
  - ‘여러 날’을 먹었다는 말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가리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
    - 학자들은 당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최소 2년은 머물렀다고 해석!

- 훗날 예수님은 이 과부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순종한 신앙인의 표본으로 칭찬! (눅 4 장)

### 3. 이후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된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17-24 절)

1) 갑작스럽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17-18 절)

- 18 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①. 먼저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함!

- ‘엘리야’가 베푼 기적을 보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

②.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는가?’

- 아마 당시 이 아들은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 - 그런데 아들이 죽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엘리야’와의 관계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기며 부정했다는 것!
-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 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게, 지금껏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던 모든 이들이 한 순간에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 부정할 때가 많다.)

③. 그러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느냐?’ 고 ‘엘리야’에게 따짐!

- 먼저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 ‘생각나게’에 해당하는 원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뜻!
- 당시 재난이나 질병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결부시켜 생각! 그래서 이 여인도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값으로 여기며 지난 날의 잘못을 기억!
- 그럼 당시 그녀가 생각하고 회상한 죄는 무엇이였을까?  
->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죄와 만난 후의 죄로 나눌 수 있을 것!

-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느냐?’란 말을 볼 때, 그녀는 ‘엘리야’를 만난 후에 행한 죄의 결과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듯!

-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못 대하거나 섭섭하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판단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안고 자신이 지내던 다락으로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19-21 절)

- ‘엘리야’가 거하던 다락

- 당시 근동지방의 ‘다락’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 --  
- 왜냐하면 뜨거운 기후로 인해 지붕 위의 다락은 통풍이 잘되는 쾌적한 곳.
- 따라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 방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나름 정성을 다해 환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으니 그 섭섭함은 더 컸을 것!

- 그로 인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이를 살려 줄 것을 요청함!
  - ‘부르짖어’에 해당하는 원어 '카라'는 ‘급히 호소하다’란 의미.
- 참고로 20 절에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가 거하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함!
  - ‘또’라는 말은 ‘반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어코’, ‘어찌하여’, ‘Why’를 의미한 말!
  - 따라서 당시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민망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주시길 호소했다는 것!

3)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2 절)

- 참고, ‘혼이 몸에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 주의!
  - 이 말은 결코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인간이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이원론적 존재임을 시사하는 말이 아님!
  - 여기서의 ‘혼’으로 번역된 ‘네페쉬’라는 단어는 ‘생명’, ‘목숨’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

4)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오자, 사르밧 과부는 진실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3-24 절)

- ①. 24 절 과부의 말을 주목! -> ‘내가 이제야’
  - ‘이제야’란 말은 ‘앗타제’ 곧 ‘앗타’(now)와 ‘제’(this)가 결합된 단어 = ‘이제 이것으로’!
  - 곧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

- ②. 나아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됨!’
  - 이것은 곧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기름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 특별히 여기서 ‘진실한’이란 말의 원 ‘에메트’란 말은 ‘목숨을 걸만큼 분명히 확실한 진실’을 가리키는 단어!
  - 그런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드디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을 깨닫고 목숨을 걸만큼 믿게 되었다는 것!
  -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영접하여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고 믿게 됨을 기억하자!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